

# 강진 다올협동조합 복합판매장 개소

전국 첫 귀농영농조합

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소비자 직거래 판매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귀농 영농조합 '다올협동조합'이 10일 강진읍 제례시장 내에 복합판매장 시설과 조합원들의 공유 공간인 카페 개소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개소식에 귀농조합회원 가족과 조합원으로 구성된 '그라제' 품풀 패 회원들이 축하공연과 강진농업기술센터 김치형소장과 군관계자들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연을 열었다.

협동조합 복합판매장은 30여 평 남짓한 장소지만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공동투자로 가게 인테리어 시설까지 손수 꾸미는 등 순수한 회원들의 노력으로 꾸며 의미를 더했다. 판매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단호박, 여주차, 깨풀쑥차, 쌀, 고춧가루, 일반차 등 무농약인증 가공식품과 농



전국 최초 귀농영농조합 '다올협동조합'의 복합판매장과 카페 개소식이 열린 지난 10일 조합원과 가족으로 구성된 '그라제' 품풀 패 회원들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된다.

또 두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품으로 전통방식으로 만든 두부도 선보인다.

조병국(54) 회장은 "협동조합 방안의 해결책으로 친환경 영농을 유도

해서 농산품 원자재와 가공식품을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해 생산해 도시소비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농촌의 가장 취약한 노농력 부재와 소농들의 영농기계 부족으로 인한 영농비 절감치원 대책 방안으로 공동영농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영암 오지마을 출향인사들의 CCTV 기부

영보마을 9곳에 설치

농산물 절도 등 방지

영암 출향 인사들이 고향의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기부해 화제다.

영암경찰서 읍내파출소는 11일 "지난 5월 지역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지역위방범 구축을 위해 과출소장 서한문을 보냈다가 지역 출신인 교보생명 신장재 회장이 던진면 영보마을에

기부금을 전달해 영보정 등 9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사진〉

기부금 300만원과 마을자금 120만원을 투입해 설치된 고성능 방법용 CCTV 9대는 지방문화재(전남기념물 104호) 영보정을 비롯 2개 마을 진입로 등 주요지점에 설치됐다.

CCTV 설치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오지마을로 60대 이상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해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심이 적고 빈집털이와 농산물 절도 등에

취약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읍내파출소에는 출향 인사 3명이 추가로 의사를 전달해 와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내 5개 마을 20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영보리 설순옥 이장은 "방법용 CCTV 설치로 마을에서 농산물이나 가축 등의 도난사고와 각종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마을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순창군 남도해양열차 관광객 유치 총력

황숙주 군수 부산역 시승식 참석 순창관광 홍보

순창군이 오는 27일 정식운행을 앞두고 있는 남도해양관광열차(S-트레인)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11일 부산역에서 출발한 S-트레인 시승식에 직접 참석했으며, 이날 S-트레인은 부산역을 출발해 청원중앙역, 진주, 하동, 광양, 순천, 여수엑스포 등에서 정차했다.

S-트레인은 외부 투명창으로 디자인된 관광마케팅팀당은 "올해 300만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군과 관련 기관, 그리고 모두가 동참하는 관광마케팅 구축으로 순창관광이 새로운 변화와 희망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부안군 곰소젓갈 명품화 사업단 구성

부안군 특산품인 곰소젓갈의 명품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안군은 11일 "곰소젓갈의 명품화 사업단을 구성해 2015년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저염 기능성 젓갈제품 개발, 관광브랜드 마케팅, 젓갈사업 컨설팅, 농식품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식품 사업화 등을 전개한다.

또 곰소젓갈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곰소젓갈 상표등록, 젓갈포장기 설치, 곰소젓갈식품센터 건립 등을 지원한다. 곰소만은 해산물을 천일염으로 절인 김장을 양념과 밑반찬 공급자로 번창했으나, 1980년 이후 수심이 압아지고 토사가 쓰이면서 근해 어업과 젓갈산업이 침체됐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정읍지황 재배단지 조성 확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의 '정읍지황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2014년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기술센터는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시비 등 모두 2억원으로 '정읍 지황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읍지황은 정읍을 응동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한 때는 전국 생산량의 70%(45ha)를 점유하기도 했지만, 중국산 한우재에 밀려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사진은 정읍지황 시범재배 비닐하우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군 SNS 소통민원창구 호응 높아

고창군은 11일 "9월부터 운영중인 SNS 소통민원창구가 벌써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SNS 소통민원창구는 기존에 운영해온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다.

군은 단순 질의 상담사항에 대해

신속히 회신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SNS 소통민원창구를 만들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단순상담 및 안내는 접수 후 3시간 이내 즉시, 생활불편신고는 접수 후 7일 이전 현장에서 해결하게 된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 '정읍사 달빛문화공원' 조성한다

정읍시, 국·시비 30억 들여 시기동 2만3000㎡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백제가요인 정읍사(井邑祠)의 고장, 정읍시가 '정읍사'를 주제로 한 달빛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11일 "정읍사 활용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도비와 시비 각각 7억5000만원을 더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정읍사'가 담고 있는 부

문화공원조성에 나선다.

시는 지난 1987년 조성된 정읍사공원 정비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부지를 정읍시 시기동 산 9번지 일원 정읍사

공원 내 2만3000㎡로 정했다.

공원에는 '정읍사'의 상징인 달 조형물을 비롯해 부부의 뜨거운 사랑을 기리는 백일홍 숲과 사랑의 계단, 정읍사 이야기의 벽,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자연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정읍사 여인을 상징화하

기 위해 망부상을 공원 어느 곳에서

## 강진청자축제 고교 교과서에 실린다

내년부터 보령 머드·이천 쌀 축제 등과 함께 지역대표축제 등재

내년부터 고등학교 학생이 배우게 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전남 강진청자축제가 수록된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학사에서 출판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104쪽에 문화적 양상이라는 소제목에서 지역 대표축제로 강진 청자축제가 실릴 예정이다.

청자축제와 함께 보령 머드축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 이천 쌀축제 등 지역축제의 대명사로 잘 알려졌

다. 지난 7월27일부터 8월4일까지 열린 제41회 강진청자축제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불거리를 갖춘 주민참여형 축제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다.

내년 제42회 강진청자축제는 강진군과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절강성 용천시, 일본 나가사기현 하사미쵸가 함께 참여하는 한중일 도자문화예술축제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나주에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의 노재민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10여명이 지난 6일부터 교대로 택배분류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택배 분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노재민 센터장은 "택배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명절때마다 분류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나주로 이전해서 맞는 첫 명절을 지역민들과 즐겁게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나주=손영기자 ycson@

## "나주 이전 첫 명절 지역민과 함께"

### 우정센터 직원들 나주우체국 택배 작업 지원

나주우체국 물류센터에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나주혁신도시 내 우정사업정보센터 직원들까지 지원에 나섰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앞두고 외지로 보내는 나주배 등 택

배물량이 늘면서 나주우체국 물류센터(집하장)의 택배 분류작업으로 북적대고 있다.

평소 하루 평균 수천 건에 불과했던 택배물량이 추석을 앞두고 2만건으로 폭증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が 심각해

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나주에 이전한 우정사업정보센터의 노재민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10여명이 지난 6일부터 교대로 택배분류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택배 분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노재민 센터장은 "택배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명절때마다 분류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나주로 이전해서 맞는 첫 명절을 지역민들과 즐겁게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나주=손영기자 ycson@

## 장성군 어린이집 보육환경 광주·전남 최고 평가점수 93.91점

장성군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및 서비스가 광주·전남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공개한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평균 93.91점으로 광주·전남 27개 시·군·구에서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전국 평균인 91.78점보다 2점 가량이 높았으며, 관내에서는 '사

임당예랑 어린이집'이 96.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도 보육 교육원에 교육 및 훈련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등 학부모들이安心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단신

### 전주시 추경 50억원 편성 농수로 일제정비

전주시가 올해 제1회 추경에 확보한 50억원을 투입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수로를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대상지는 농촌지역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벌여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 지역 내 배수로 등 우수 시급성이 필요한 지역,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74개소로 선정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친 후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4억9600만원을 투자해 3개소의 농수로와 7개소의 농로 정비를 마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 순창군 추석 귀성객 맞이 공중화장실 특별점검

순창군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오는 귀향객과 귀성객을 위해 이동식 공중화장실 청결상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군은 오는 17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이용객이 급증하는 터미널과 자연발생유원지 등 군 지역경제 및 4개과에서 관리하는 21개소 공중화장실과 환경부서에서 관리하는

72개소 공중화장실(이동식화장실 포함) 등에 대해 특별점검과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생편의용품 비치상태와 소독 시행, 청소 및 청결 등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남원시 추석연휴 광한루·춘향파크 무료개방

남원시 시설사업소에서는 추석을 맞아 연휴 기간 남원의 대표 관광문화자원인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광한루원은 보물 제281호인 광한루와 춘향의 일기 담겨있는 춘향사당, 견